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주식 상승 스타트

###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버블을 마음껏 즐기자

2017/11/23

#### ■ 제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종목이 확산되고 있음

그동안 코스닥 제약바이오주들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제4차 산업혁명 성장 기대감에 대한 전조현상의 의미를 지닌다. 만약 제약바이오주들만 상승하고 종목들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업종흐름으로만 해석이 가능한데, 어제(11/22)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개될 제4차 산업혁명의 관련주인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 통신인프라, 콘텐츠, 의료용 로봇, 지능형정보기술(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IT소재 등이 상승흐름을 보임에 따라 종목 확산 뿐만 아니라 향후 상승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만의 리그가 아닌 전세계 제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벤처육성 정책 등을 근간으로 두고 향후 여러가지 혁신성장 전략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수시장인 코스닥 독립성 강화, 혁신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장벽 완화, 연기금 등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와 결부하여 오는 12월에는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규제 재설계와 관련해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즉,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신산업을 두고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여 올해 중에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규제샌드박스는 ICT와 기존산업이 융합되는 분야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수혜가 기대된다.

#### ■ 한·중관계 개선으로 콘텐츠 관련 주식들 수혜 받을 듯

어제(11/22)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2월 중순 중국 방문에 이어 내년 강원도 평창 올림픽 시진핑 주석 초청 등이 한·중관계 개선 지속성을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게임,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관련 주식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중국 관광객들과 관련된 주식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Analyst 이상헌

(2122-9198)

value3@hi-ib.com

조경진

(2122-9209)

kjcho@hi-ib.com

<표 1> 혁신성장 및 한중관계 개선 투자 유망주

구분	투자유망종목
한중관계 개선 수혜주	엔씨소프트, 넷마블, CJ E&M, 텍스터, 스마트카 관련주
	롯데쇼핑,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GKL, 아모레G, LG생활건강, 제이준 등
지배구조, 융합플랫폼, IP	엔씨소프트, 카카오, NAVER, 게임빌 등
스마트카	포스코캠텍, 에코프로, 엘앤에프, 일진머티리얼즈, KG케미칼, 신흥에스이씨, LG화학, 삼성SDI 등
	아모텍, 유니퀘스트, ISC, 삼화콘덴서, 우리산업, 한컴MDS, 해성디에스, 뉴로스, 넥스트칩, 한라홀딩스 등
스마트 팩토리	포스코ICT, 에스엠코어, 삼성에스디에스, SK, LS산전, 한신기계, 베셀 등
통신인프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케이엠더블유, 이노와이어리스, 엔텔스 등
블록체인	삼성에스디에스 등
에너지 프로슈머	SK디앤디 등
의료용 로봇	고영 등
지능정보기술	삼성전자, 더존비즈온, NHN한국사이버결재, 효성ITX, 아이콘트롤스, 에스원, 등
(IoT, 빅데이터, AI)	SKC코오롱PI, 테크윙, 디아이, 지니뮤직, 누리텔레콤, 동운아나텍, 싸이맥스, 아이앤씨 등
바이오헬스	코오롱, SK케미칼, 오스템임플란트, 비트컴퓨터, 팹트론 등

자료: 하이투자증권

<표 2> 혁신성장 관련 정부정책

분야	대책	발표시기	담당부처
혁신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11월	기재부
	제조업 부흥전략	12월	산업부
	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		산업부, 국토부
	네트워크형 산업 생태계 구축 대책		중기부, 기재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대학 운영 계획		교육부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		과기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기본구상		국토부
혁신 거점 구축	지역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10월	산업부,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국토부
	한국형 창작 활동 공간 구축 방안		중기부, 기재부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11월	국토부
규제 재설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마련	11월	공정위, 국조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2018년	국조실
혁신 인프라 강화	혁신 창업 종합 대책	11월	중기부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	12월	공정위

자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하이투자증권

<그림 1>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방안의 추진 방향



자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하이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이상현, 조경진)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 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9-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8.3 %	11.7 %	-

